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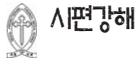
◎ 2007년도 표어 ◎

교회여 진리의 빛으로 다시 서라
-민족을 깨우는 우리교회 (사 51:17, 롬 13:11)

◎ 행동지침 ◎

- 1. 세계 복음화
- 2. 교회 천국화
- 3. 문화 기독교화

†발행인 : 이 중 윤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558-1106 팩스: (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소서

(시편 40:1-17)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고 하는 것은 살 길이 전혀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 시를 쓴 다윗은 40년간 권좌에 앉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백성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다윗이었습니다. 삼상 13:14에 의하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다윗이 자신은 피할 길이 없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고 고백합니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삶에는 이와 같은 웅덩이와 수렁이 있게 됩니다.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 앞에 받은 큰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현재적 응답을 하고, 미래에도 구원하실 것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는 나의 도움이 시오 견지시는 자시라’고 고백하면서 견지시는 일을 지체하지 마시라고 호소합니다.

1.과거에 구원하심을 감사하자(1-3절)

진흙 구덩이나 수렁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죄의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꼼짝도 못하는 상황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삼하 11장에 의하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통하고 마침내 살인죄까지 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불러옵니다. 죄에 빠져드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빠져 나올 수 없는 곳이 수렁입니다. 다윗은 아마도 자신의 이런 죄를 생각했는지 모릅니

다. 롬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에 빠졌다고 합니다. 죄로 인해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우리를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하는 일마다, 가는 곳마다 실패뿐이요 성공의 경험은 단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패가 어느 정도이든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좌절의 수렁에서 성공의 자리로 끌어내실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 의해 오랜 기간 쫓겨 다니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 사울을 제거해 주시기까지 긴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1절), 이것이 신앙입니다. 성도의 의무 중 하나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로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때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돌로 매를 맞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히기를 수없이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환경적 위험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환경을 바꾸시지는 않으셨지만,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고 후 4:8-9)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통과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심으로 하나 씩 하나 씩 도우시며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어 새 노래를 부르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새 노래는 구원의 노래며 용서의 노래이고, 신앙의 노래이며 결심의 노래입니다.

2.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현재적 응답

시편의 특징 중 하나는 저자의 개인적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면서 다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웅덩이와 수렁에서 과거에도, 현재도, 그리고 미래에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뿐이니 감사의 새 노래로 찬양하고, 지속적인 도우심과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하며 찬양과 전도와 기도의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선하심을 체험하도록 권고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4절).

다윗은 자신이 여호와를 의지하듯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자기 백성을 위해 크신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를 의지하는 백성을 위해 더 크고 좋은 것을 계획하고 계시므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복이 임하게 됩니다.

“너희는 여호와와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시 34:8).

아무리 훌륭한 잔치에 초대받았어도 음식을 맛보지 않고는 그것이 얼마나 좋은 음식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의 선하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순종 없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와 속죄제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6절).

렘 31:33은 새 언약장으로 널리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지금까지는 돌에 새긴 율법이었는데 이제는 마음에 새긴 율법, 곧 새 언약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음속에 율법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마음 없이 한 구제는 위선입니다. 마음 없이 선교했다면 자기자랑입니다. 마음 없이 한 사랑은 위선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음을 다 바친 사람은 신실한 증거를 하게 됩니다. 마 12:34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악한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열리면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마음이 변하면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토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3.미래 구원을 위한 기도

다윗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기다렸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를 끌어내어 반석 위에 두시고 그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여전히 고통이 있고, 계속해서 구원이 요청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11절). 결국 인생은 고통과 문제의 연속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는 항상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미래에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웅덩이와 수렁에서 과거에도, 현재도, 그리고 미래에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뿐이니 감사의 새 노래로 찬양하고, 지속적인 도우심과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하며 찬양과 전도와 기도의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XK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100만인 전도 - 단기전도학교 개강

-21기 과정 2월5일(월) 개강-

모든 성도들이 전도학교를 수료하고 전도의 책망이 되어 백만인 전도운동에 불을 댕기는 단기 전도학교 과정이(21기) 내일부터 개강된다.

단기전도학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매일 5회 열리며 성도들의 시간에 맞추어 수강을 하면 된다. 접수는 각 층(2,3,4층)에 비치된 수집함에 넣으면 되고, 오전반은 수요일은 오전 9:00-10:30까지이다.

자세한 단기전도학교 일정은 다음과 같다.

시간	시작일	21기(2월5일)	22기(2월12일)	23기(2월20일)	24기(2월26일)	25기(3월5일)	26기(3월12일)	27기(3월19일)	28기(3월26일)
새벽반 06:10-07:40		이규정	장석남	서명철	윤영국	이태훈	정수길	한상은	이규정
오전반 10:20-11:50		윤영국	서명철	정수길	한상은	정수길	장석남	이규정	윤영국
오후1반 14:00-15:30		한상은	이규정	장석남	서명철	윤영국	이태훈	정수길	한상은
오후2반 16:00-17:30		이태훈	윤영국	이태훈	이규정	한상은	서명철	장석남	서명철
저녁반 20:00-21:30		장석남	한상은	이규정	정수길	서명철	윤영국	이태훈	정수길

한편, 29기 화요전도학교는 2월6일(화) 오전 10시 603호실에서 개강한다.

<단기전도학교 일정>

- 기간: 2월5일(월)~3월30일(금)
- 수료기간: 5일간(월요일-금요일)
- 훈련시간: 1시간 30분(5일간 매일)
- 강의실: 601호

대학부 겨울수련회

2월5일(월)-7일(수)

우리교회 대학부(부장: 노문환 장로) 수련회가 5일(월)부터 7일(수)까지 철원 수도중앙교회 수양관에서 열린다.

'부르심'이라는 주제를 갖고 이종윤, 서명철, 이태훈 목사를 강사로 모신다. 대학부 학생은 물론 대학생 나이에 속한 이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출발은 5일(월) 9시 교회에서 하며 은혜받을 마음을 준비해 오도록 한다.

총회 선교사 후보 35명 우리교회 방문

2월7일(수) 오후 5시30분

총회파송 선교사 후보 35명이 우리교회를 방문하여 서울교회 선교 정책 및 현황설명을 듣는다.

2월7일 수요일 2부 예배 전 교회에 도착하여 설명을 들은 후 수요일 2부 예배시 특송도 한다. 선교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

열기로 달아오르는 성경 일천독 대장정

지난 주일까지 1,180명 신청

코끝을 매섭게 파고드는 한겨울의 추위를 성큼 물러나게 하는 열기가 온 교회 내에 가득하다. 바로 성경 일천독 대장정의 뜨거운 발걸음이다.

2월2일(금) 현재 성경을 통독하고 사무국으로 보고한 성도가 정동호 집사(14교구)를 시작으로 총 7명이 나왔다. 이들은 하루에 8시간 이상을 성경을 통독하며 깊은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성경을 일독하였다.

한편 지난주일(1월28일)까지 사무국과 인터넷으로 신청한 성도들은 모두 1,180명으로 이들은 교구별로 분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비치될 현황판의 한반도에 기재되게 된다.

1월28일 이후에 신청한 성도들도 계속 번호를 부여하게 된다.

많은 성도들이 생명의 양식이 되는 성경말씀을 읽으며 영육 간에 풍성한 은혜 누리는 2007년이 되도록 기도한다.

<성경통독 성도명단>

- 정동호 집사(14교구) 이지민 성도(대학부)
- 이승준 성도(청년부) 정동학 집사(7교구)
- 김경한 성도(14교구) 최진경 성도(대학부)
- 조광희성도(대학부)

대·청부 부지도 청빙

우리교회는 대학부와 청년부를 지도할 교역자를 각각 청빙키로 하였다. 이들은 현재 지도 목사를 도와 전도사역과 상담사역에 전력케 된다.

<대학부 부지도>

장정남 (1973년생)

- 서울여대 행정학과 졸업
- 장신대 신대원 3학년 재학중

<청년부 부지도>

박해원 (1970년생)

- 숭실대 철학과 졸업
- 장신대 신대원 2학년 재학중

자매결연으로 군 선교에 박차를...

해군사관학교 · 해병대 교육훈련단

전 국민의 75%를 복음화하기 위해 범 교회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비전2020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우리교회는 2007년 신년 들어 그 지경을 더욱 넓혀가고 있다.

우리교회가 포항에 위치한 해병대 교육훈련단과 진해에 위치한 해군사관학교와 자매결연키로 한 것이다.

해병대 교육훈련단 교회(담임 최태양 목사)는 오는 3월16일(금)에 진중세례식을 계획하고 이날 자매결연식과 함께 우리교회에서 세례식을 주관해 달라는 요청을 해 왔다. 이날 진중세례식에는 4-500여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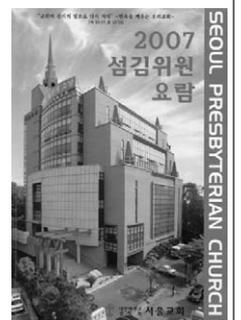
의 장병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교육훈련단 교회는 매주 일 7-800여명의 장병과 그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다.

또한 해사교회(담임 황성준 목사) 역시 우리교회와의 자매결연을 요청하여 자매결연을 하기로 하였다. 우리교회는 지난 2005년 3월9일 해사59기 졸업 감사예배를 주관한바 있다.

민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실천하고 있는 우리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도록 기도한다.

2007년 섬김위원 요람 판매 -1층 서점에서-

2007년 섬김위원 요람이 발간되어 판매 중이다. 요람의 가격은 5,000 원으로 제직들과 섬김위원들이 자세히 나와 있다. 성도들은 구입하여 교회의 여러 사역에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



요람에 수록된 주소나 전화는 교회 업무 외의 상업적 목적이나 놀이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만민에게 전도- 동아시아 강아급·주한나선교사도고팀

지금 그리고 여기에...

우리교회는 2010년까지 100명 이상의 선교사 파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7년 부흥의 해를 맞아 순례자에서는 교회계획에 발맞추기 위해 현재 10여개국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기도제목과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기도로 돕고 있는 선교사도고팀들을 소개합니다. (편집부)

김수정 집사(강아급 주한나선교사도고팀장)

우리는 이제 복음의 빛을 깊어야 할 때입니다.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위한 선교사도고모임 참석으로 복음의 빛을 깊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생명을 잃어야 하는 핍박을 받고 있고 예수님을 몰라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동아시아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심해 발각되면 고문과 죽임을 당하게 되고 급 발전하는 경제의 물결로 어렵게 전도 받은 신실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의 안전을 위하여 영적싸움

에서 패하지 않고 이기기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잠시 나오셨던 선교사님이 도고의 힘을 선교지에서 체험했다고 합니다. 불가능하게 보였던 비자문제가 기적적으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쉽게 해결 된 일과 가족들의 하나 되지 못한 마음으로 사역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화목한 가정으로 바뀌었다는 간증을 하셨습니다. 기도회로 열심히 모이다보니 자연스럽게 개인기도 제목도 서로 나누며 우리의 부족한 기도를 모두 응답하시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선교지로 떠나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같고 남아서 기도하는 사람은 모세이고 아론이고 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단마귀는 13억이나 되는 하나님의 잃은 백성을 찾아오는 일을 내버려둘 리 만무합니다. 지도자를 양육하는 일, 제자를 양육하는 일, 신앙서적을 번역하고 통역하는 일 모두 기도의 무릎이 간절히 요청되는 사역입니다.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위태로운 나라를 위해 주의 뜻을 따라 기도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매주일 3부 예배 후 802호에서는 동아시아에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모임이 있습니다.

제 63기 총회 전도학교를 다녀오며.

전도의 불꽃이 이땅에...!

이태훈 목사(3, 4교구 지도)

한국 교회는 2007년을 맞아 100만 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전도의 불꽃이 이 땅에 힘차게 솟아오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회가 이러한 일에 시범교회로 선정된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금번 각 교구를 담당하고 계신 목사님들이 총회 전도학교 과정을 수료하게 된 것도 먼저 모범을 보이기 위한 발걸음이었습니다. 또한 3박 4일간 매일 12시간의 강의와 실습으로 구성된 이 프로그램의 수료는, 각 교회에서 총회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교인들을 훈련시키고 총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는 강사의 자격을 얻는 데에도 꼭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60여명의 노회 임원급의 목사님들과 함께 배우는 강의는, 강사 목사님들의 뜨거운 열정과 전도 부흥운동의 노하우를 생생하게 전수받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강의 후에 실시된 노방 전도 또한 참으로 가슴 벅찬 장면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목사님들과 도우미 집사님들이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기회는 앞으로도 쉽게 가질 수 없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나흘간의 교육 훈련은 전도에 대한 새로운 신학적 체계와 열정을 배울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식과 열정을 제일 먼저 서울교회 성도님들께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솟아났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 내가 서울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뜨거운 감격도 우리의 가슴 속에 함께 경험한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천국시민 양성- 사랑부 겨울수련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

2월11일(주일) 오전 10시30분 - 102호에서

이종창 집사(사랑부부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육체적 선민이 아니라 영적 변화를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의 돌봄과 섭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신적적 결합이나 정신적 연약함을 가진, 그러나 너무나 맑고 영통한 영혼을 소유한 장애우들이 모인 사랑부 겨울수련회가 개최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 치유 받는다' 이것은 사랑부의 교육 목표입니다.

반복 교육과, 개별화 교육, 통합예배와 통합교육을 통해 비 장애우와도 하나님나라의 한 가족임을 느끼게 합니다. 호산나 대안 학교와 장애인 특수학교 등과의 지속적 관계성을 유지하면서 전도도 합니다. 율동있는 찬양으로 주의집중과 모방행동을 향상시키고 부자유한 지체에 활력을 부여 줍니다. 또한 학생들에 대한 이해와 장애에 따른 돌봄을 위해 수련회

전에 교육과 기도로 재무장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 나타나게 되며 학생들에게는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차게 될 것입니다. 사랑부는 102호실에서 모입니다. 장애우들과 1:1이 되어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줄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교우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집에서 재가 훈련을 하고 있는 장애우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서울교회 사랑부 겨울수련회에 보내 주십시오.

작년에 선보인 핸드벨콰이어 팀과 올해 공연 예정인 기타합주를 위해 기타합주반원들이 매 주일 902호실에서 12:00~1:00까지 박진희, 이승준 선생님의 지도로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쓰지 않는 기타를 사랑부로 보내 주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랑부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번 수련회동안 서로 사랑을 나눕시다.

찬양예배 특별 순서

■ 가브리엘 찬양대 ■

- Brass Market 금관 5중주단 초청 연주회
- 연주단체 소개 : Brass Market 금관 5중주단은 국립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예술사 학생들로 구성된 악단으로 이들은 학생 신분이지만 수차례에 걸친 해외 연주 경험이 있는 전문 실내악단이다.
- 나웅준 (1st. Trumpet), 은중기 (2nd. Trumpet), 최우영 (French Horn), 최종선 (Trombone), 김중우 (Tuba)
- 찬양하라(찬송가 46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이영조 편곡) 외 2곡 연주

호산나학교 겨울 캠프 “겨울 속으로 go! go!”가 지난 2007년 1월 16일(화) ~ 19일(금) 3박 4일간 강원도 둔내 유스호스텔에서 호산나학교 재학생 56명, 교사 6명, 자원봉사 4명 총 66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되었다. 하얀 눈이 덮인 강원도 둔내 유스호스텔에서 학생들은 바운딩 서바이벌 게임, 카드 섹션, 카드 빙고 게임, 눈썰매, 양궁, 장기자랑, 도미노, 골프, 레크리에이션, 해피 700산책 등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과 실내 게임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천국시민양성 - 호산나 학교 겨울 캠프

겨울 속으로 go! go!



이번 겨울 캠프를 통해 학생들은 심신단련, 공공장소이용, 집단 활동을 통해서 사회성 향상을 도모하는 기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설경 속에서

도움이 되었으며, 참여한 교사 역시 학생들을 통해 많은 보람을 느꼈다고 했다.

호산나 학교 교사일동

만민에게 전도- 전도학교를 수료하며.

복음 들고 가는 발걸음 - 아름답게 하소서



현승희 집사(3교구)

13년간 주재원 가족으로 해외에 살면서 적은 규모의 교민교회를 섬겼던 저는 작년 4월 서울교회에 등록하였고, 다락방장님의 권유로 이번 20기 전도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나름대로 복음을 전했던 저는 체계 없는 전도 방법과 불충분한 말씀으로 인해 늘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체계적인 전도와 명확한 복음제시를 할 수 있는 전도 방법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도학교의 훈련은 저에게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피플퍼즐 세미나를 통해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성품을 이해하며 인정하는 법을 배웠고, 이것은 건강한 관계 형성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숙제를 하기 위해 직접 성경을 쓰면서 마음이 뿌듯했고, 외운 말씀들은 저에게 새 힘이 되었으며 무엇보다 제 자신에게 구원의 확신이 더욱 깊어지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경험은 도곡

렉슬 아파트로 나가는 전도실습이었습니다. 전도할 때 예전의 불안하고 떨렸던 마음은 훈련을 통해 조금씩 깨끗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변했고, 당황스러움에 위축되었던 모습들은 점차 안정감을 찾았습니다.

전도훈련 기간 동안 저는 제가 다니는 은행 여직원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였습니다. 그분은 늘 저에게 예수를 믿어서인지 삶이 편안해 보인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마침내 그분을 교회로 인도하였고, 그 분이 예배드리시는 모습을 찬양대에서 바라보는 나의 마음은 너무나 벅차 떨리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분은 바로 등록하셨고, 저는 그 후로도 계속 그분과 접촉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은행 일을 나누며 며칠 씩 간격을 두고 찾아갔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교회로 인도해 주어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죄 문제를 해결 받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도학교를 통해 저를 다듬어 주신 하나님, 강의를 해주신 장석남 목사님, 그리고 화요일전도학교를 섬기시는 모든 스텝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100만인 전도운동에 나도 동참하도록
2. 일천명 성경통독대원에 나도 참여하도록
3. 교회예산 60% 이상 남을 위해 쓸 수 있도록
4. 겨울성경학교 · 수련회 은혜롭게 준비되도록
5. 국가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애국 · 애족 하도록

● 교회오시는 길



<도서실 신간입하>

1. 내려놓음-(이용규) 2006.3
2. 사랑의 원자탄(손양원 목사 순교 일대기)-(안용준) 2007.1
3. 자신감-(전병욱) 2006.12
4. 울고도 아름다운 당신-(박완서) 2006.12
5. 우리는 사랑의 힘을 믿습니다-(하시모토 다카시) 2006.12
6. 예수와 함께 한 저녁식사-(데이비드 그레고리) 2005.12
7.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제롬 텔리) 2007.1
8. 천국의 발견-(마일즈 먼로) 2006.11
9. 1% 하나님의 법칙-(홍경분) 2007.1
10. 구원의 사랑-(프랜신리버즈) 2006.12
11. 긍정의 힘-(조엘 오스틴)
12. 긍정의 힘-실천편
13. 긍정의 힘-묵상편 2007.1
14. 하나님의 관점-(토미 테니) 2005.12
15. 신의 열애-(진 에드워드) 2006.5
16. 섬김-(빌 하이벨스 외) 2006.10
17. 겸손-(C.J 매카니) 2007.1
18. 토마스 목사전-(유해석) 2006.4
19. 내 아픔을 아는 당신께-(조하문) 2006.8
20. 빛색깔공기-(김동건) 2006.11

<일반서적>

1.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일랭드보통) 2002.7
2. 배려-(한상복) 2006.1
3. 마시멜로 이야기-(호아킴 데 포사다)-2005.10
4. 피라니아 이야기-(호아킴 데 포사다)-2006.9
5. 빗방울처럼 나는 혼자였다-(공지영) 2006.5
6. 인생수업-(엘리자베스 퀴블러) 2006.6
7. 리터의 눈물-(키토야야) 2006.7
8. 밀리언 달러 티켓-(리처드 파크 코독)-2006.11
9. 달콤한 나의 도시-(정이현 외) 2006.7
10. 바보처럼 공부하고 천재처럼 꿈꾸라-(신웅진) 2007.1

등정

■ 이종운 목사는 8일(목) 군선교연합회 이사회, 9일(금) 세계기독교 학술원 발기인 모임에 참여한다.

■ 특남: (14-11) 이선호 성도 정운용 성도 가정

■ 이사: 유윤상 집사, 이현미 집사(1교구) 강남구 도곡2동 516-3 선경빌라 202호
최정필 홍지민 성도 가정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동탄신도시 현대 lpark 228-302 T. 010-3182-3355

■ 주간식당 봉사: 에스더전도회(2.4) 한나전도회(2.11)

■ 금주의 식사: 박형수 집사 이경화 집사 가정
(부친 박두영 장로 은퇴 감사하며)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30분	

▶ 대치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